

뉴멕시코주
한인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1월호 Jan.
2010

[한인회 소식]



지난 11월 18일 LA 영사관(홍석례 영사님)의 순회영사 업무가 뉴멕시코 한인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어버이회 소식]



1) 11월 19일 어버이회 모임에 귀빈들을 초청해서 추수 감사절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2) 어버이회 2009년 마지막 모임인 12월 10일 모임에

서, 12월 생일을 맞으신 이덕녀님, 안교정님, 조은순님, 정근태님의 생일 파티를 열어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날은 어버이들께 한 해의 마지막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라고 오창석님과 정지혜님이 마련하신 오찬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1년 동안 수고하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새해에 더 기쁜 얼굴로 만나기를 기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뉴멕시코 목회자 정기 모임]



12월 28일 월요일 아침 11시에 한인회관에서 뉴멕시코 목회자 모임이 열렸다. 이석종 목사, 신경일 목사, 최치규 목사, 현용규 목사, 윤성렬 목사, 김기천 목사 외에 두 분의 사모님들이 동석하였다. 2009년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모였던 정기 모임인지라 의미가 깊었다. 올해에는 특히 뉴멕시코 성결교회가 한인회관에서 개최되면서 목회자 모임 새 식구로 최치규 목사가 영입되었다. 신년도에는 목회자 모임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자는 각오를 가지고 신년도 첫 계획으로 뉴멕시코 교회 연합으로 해병대 장군으로 퇴역하신 김기홍 장로를 모시고 오는 2월에 연합집회를 열기로 했다. 장소는 성결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돌아가면서 모이기로 했다. 교회들이 한마음이 되어 연합하면서 행사를 하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이다. 회무



를 마친 후에 최치규 목사의 점심 식사 초대가 있어서 참석한 목회자들은 식사를 하면서 서로간의 교제와 사랑을 나누게 되었다. 뉴멕시코의 선교를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연합되어야 하고 또한 각 교회 목회자들이 연합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지역 사회에 아름다운 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신년 1월 목회자 정기모임 공고

목사님들에게,
소망의 새해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귀하신 목사님들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에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신년 첫 모임을 갖습니다. 필히 사모님들 동반하시어 참석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인회에서 김두남 회장 및 임원들이 참석하여 식사를 겸한 간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신년 첫 모임이므로 기념촬영을 하면 좋겠습니다.

윤성열 목사 드림

아 래

일 시: 1월 18일(월), 오전 11:00

장 소: 침례교회

안 간: 김기홍 장로 간증집회 및 신년사업계획 등등

식사대접: 한인회

[어버이회 행사]



[한국학교 소식]

뉴멕시코 한국학교

NM KOREAN LANGUAGE SCHOOL(NMKLS)

밝고 희망찬 2010 경인년을 맞이하여 새해인사 드립니다. 지난 한해에도 저희 학교를 향한 많은 분들의 관

심과 도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올해도 다 같이 함께 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모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을 기원 드리며 유쾌하고 즐거운 일들로 2010년을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 Everyone at the NMKLS would like to thank everyone for their support and love in 2009. We believe that together, we can make 2010 another special year filled with hopes. We wish love and happiness to every family, and hope 2010 will be filled with many good

봄학기 등록일: 2010.01.16 토요일 10 AM - 12 PM

봄학기 개강일: 2010.01.20 수요일 & 2010.01.23 토요일

Spring Registration: 2010.01.16, Saturday, 10 AM-12 PM

Spring Classes begin on: 2010.01.20, Wed. & 2010.01.23 Sat. things.

2010년 경인년 "한국어 사랑" 캠페인

2010 "Love for Korean" Campaign

세계적 불경기로 모두가 힘들었던 2009년을 접고, 희망찬 2010년을 바라는 "한국어 사랑" 캠페인은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한국학교의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현 학생들도 계속 한국어를 꾸준히 배우고 새 학생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한 학기 수업료를 학생당 \$100로 낮추었습니다. 모든 한인가정들이 참여를 하여 다 같이 한국어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To leave behind us an economically challenging year and a new year filled with hopes, NMKLS has initiated the "Love for Korean" Campaign to offer Korean education to everyone. During this campaign, we are lowering our tuition to \$100 per student in hopes to an opportunity for to come and share our love for everything-Korean. Please join us and help us succeed in our campaign.

청소년 / 성인 한국어 회화반

Youth / Adult Conversational Korean Classes

수요일 Wednesdays, 6 - 8 PM

봄 학기 Spring Semester: 2010.01.20 - 2010.05.05

청소년/성인반은 생활 회화 위주의 수업을 영어로 진행합니다.

Youth/Adult classes are taught in English with emphasis on conversational Korean.

아동 한국어반 (만 4살 - 12 학년)

Children's Korean Language Classes (Pre-K to 12th Grade)

토요일 오전 Saturdays, 9:15 AM - 11:15 AM
봄 학기 Spring Semester: 2010.01.23 - 2010.05.13

한국어로 수업을 하면서 한글과 한국문화/역사를 배웁니다.

The Saturday children's classes are taught in Korean, with emphasis on learning Korean language and culture/history. (A minimum of four students are required to form a class taught in English.)

미술반 (만 4살 - 12 학년)

Art Classes (Pre-K to 12th Grade)

토요일 오전 Saturdays, 11:15 AM - 12:15 PM

지도교사 Instructor: 이시영 선생님, Mr. Siyoung Lee (MFA, U. Penn., 현 중/고등학교 미술교사, arts teacher to middle & high school students)

미술반은 특별 활동반으로 수업료(재료비 포함) \$50를 추가로 받습니다. 신청 받을 수 있는 미술반 학생 수는 한정되어 있으니 등록 선착순으로 반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The optional art classes are offered at the additional tuition (including materials fees) \$50. Since these classes limited space, the students will be accepted in the order of paid registration.

한국 동요반 (만 4살 - 12 학년)

Korean Children Songs (Pre-K to 12th Grade)

토요일 오전 Saturdays, 11:15 AM - 12:15 PM

한국 동요반은 특별 활동반으로 수업료(재료비 포함) \$25 추가로 받습니다. 신청 받을 수 있는 한국 동요반 학생수는 한정되어 있으니 등록 선착순으로 반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The optional Korean children songs classes are offered at the additional tuition (including materials fees) \$25. Since these classes have limited space, the students will be accepted in the order of paid registration.

한국학교 인터넷 게시판

NMKLS Information on Internet

한국학교에 관한 공지사항은 www.kaanm.com ("Korean School"을 눌러 주세요)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New and updated information can be found at www.kaanm.com (click on the "Korean School" tab).

연락처 POC:

교장 전옥미 Okmi Jun Blemel, MBA, Principal
nm.kls@hotmail.com / 505-991-2160
뉴멕시코 한국학교 NM Korean Language School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광야의 소리는

매달 15일에 원고를 마감합니다.
원고나 뉴멕시코주 소식에 관한 기사를 보내시거나
광고를 요청하실 분은 마감 전까지
권구자 부장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도네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흑백: 1/8 페이지-\$20, 1/4 페이지-\$40
칼라: 1/8 페이지-\$35, 1/4 페이지-\$70, 1/2 페이지-\$200

담당: 권구자 505-553-1009, Kuchachoy@q.com
편집위원: 이철수, 김채원, Joshua shin

§ Voice in the Wilderness §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오복을 부르는 장식, 민화

민화는 예술적 감상보다 장식을 위해 그린 그림입니다. 병풍, 다락문, 가구 등 생활용품에 장식하며 우리 조상의 일상을 가꾸어주었지요. 민화에는 무병장수, 다산과 풍요, 부귀영화 같은 지극히 인간적인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삶에 대한 애착과 동경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오복을 부르는 그림, 민화 한 점에 새해 소망을 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현대 공간에서 빛을 발하는 민화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봅니다.

민화 이야기

민화를 흔히 낙관이 없는 그림, 제작 연대나 작가를 모르는 그림이라 한다.

사군자나 수묵화처럼 전통 회화의 격식을 차리지 않았기에 조선 시대에는 잡화, 별화, 속화라고 불리며 사대부 계층에는 천시되던 그림이다. 그러나 민중의 진솔한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한 민화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일반 서민의 생활 속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 잘난 척하지 않으며 가식이 없는 그림,



자유롭고 독특한 발상, 기발하고 천진스러운 표현이 현대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이라 하겠다. 문인화가 작가의 예술성과 세계관을 반영한 감상을 위한 그림이라면 민화는 장식적 필요에 의해 그려진 생활 미술이다. 대표적인 민화 병풍을 들 수 있다. 옷풍이 센 한옥에서 병풍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세간으로

일상적인 생활공간과 혼례, 생일, 제사 등 집안 행사에서 언제나 사용했는데, 자손의 번영과 출세, 무병장수 같은 인간적 소망을 담은 상징적인 그림, 곧 민화로 장식했다. 또 옛사람들은 영적인 힘을 지닌 동물 그림을 집에 둬으로써 잡귀를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이는 민화의 발생과 전파에 큰 역할을 했다.

생활에 필요한 장식이나 주술적 용도로 그린 만큼 민화에는 서민의 공통되는 세계관, 집단적인 미적 체현을 원초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화는 눈에 보이는 사물의 묘사, 사물과 사물의 관계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현실에 없는 것이라도 상상을 동원해서 표현하기도 했다. 민화는 똑같은 그림이 많은데, 장식용인 만큼 일정한 본에 의해 반복적으로 그린 일종의 ‘뽀그림’이기 때문이다.

소망을 담은 탐스러운 그림, 소과도 蔬果圖

열매와 씨앗은 자손의 번창과 부를 상징한다. 농경 문화권에서 자손이 많은 것은 곧 부를 늘리는 방법이 었기 때문이다. 과일은 덩굴이나 가지에 매달린 것으로 그리는데, 이는 자손이 덩굴처럼 이어져 영원히 번성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많은 자손을 표현하기 위해 과피가 벌어지거나 칼로 자른 과일을 그려 씨앗이 들여다보이는 모습을 표현하기도 했다. 붉은 씨앗으로 가득 차 보석을 간직한 복주머니 같은 석류는 부귀다남을, 젓먹이 엄마의 유방을 연상시키는 분홍빛 복숭아는 모성과 함께 불로장생을 의미한다.

사랑방에서 찾은 구경거리, 책거리

주로 사랑방을 장식하던 책거리는 고매한 학식을 쌓고자 한 조선 시대 선비들의 소망을 담고 있다.

책가도, 문방도 등으로도 불리는 책거리에 그려진 책 무더기는 높은 학식에 대한 열망이었다.

따라서 과거 시험을 앞둔 아들의 공부방, 때로는 자식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 갓 태어난 아기 방에 걸어 놓기도 했다. 책거리에는 문방사우뿐 아니라 술병, 주전자, 부채, 시계, 꽃병, 분재 등 사랑방의 갖가지 생활 용품을 함께 그렸는데, 이를 통해 조선 시대 사랑방 풍경을 가늠해볼 수 있다. 여자의 치마, 꽃신, 꽃과 과일 등도 함께 그렸는데 이는 수복이나 자손 번성 같은 인간의 기본 욕망을 담아낸 것이다.

책거리는 산수화나 화조도와 달리 입체적인 그림이다. 책이 뒤쪽으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역원근법을 사용하기도, 한 그림 안에 여러 개의 시점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는 책거리만의 특징이다.

악귀를 물리치고 복을 들이는 까치 호랑이



우리 조상은 용과 호랑이 등 무서운 형상을 그려 집 안팎에 붙이는 풍습이 있었다. 영물로 여기는 동물 그림이 악귀를 물리치는 벽사의 힘을 갖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동국세시기>에 따르면 매년 정초가 되면 해태, 닭, 개, 호랑이 등을 새로 그려 붙였는데, 이는 입춘방처럼 축귀와 구복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문배 그림으로 사랑받은 까치 호랑이 그림은 새해의 기쁨을 알리는 길상적 의미를

갖고 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로 여기는 까치는 인간의 길흉화복을 좌우하는 서낭신의 사자로, 호랑이는 서낭신의 신지를 받드는 심부름꾼이라 여겼다.

규방에서 색실로 그린 그림, 자수

종이에만 민화를 그린 것이 아니다. 신부가 타고 가는 꽃가마를 비롯해 도자기, 가구, 문방구, 돗자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활 용품을 장식했다. 소망과 염원을 담은 민화는 조



각이나 문양으로, 알록달록 색칠로 곱게 수놓아 자수로도 표현했다. 심장생도나 화조도를 자수로 표현한 병풍뿐 아니라 소소한 규방 소품을 장식 한 자수도 모두 실로 수놓은 민화라 할 수 있다. 규방 장식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꽃은 부귀와 번영, 축복, 다산과 강녕 등을 소망하는 마음을 담는다.

금실을 돋우는 화조도

화조도는 어느 공간이나 격식 없이 장식하던 대표적인 길상화다. 화조도는 매화, 동백, 진달래, 오동, 솔, 해당화 등에 봉황, 원앙, 공작, 제비 등을 물이나 바위를 배경으로 그린 그림이다. 민화에 등장하는 새는 반드시 암수 한 쌍으로 의중게 노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부부가 화합하고 금실이 좋다는 것에 비유된다. 화조도에는 백년가약을 맺은 부부가 일평생 사랑을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 재산을 모으고 벼슬에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겹고 후덕한 경사만 생기며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지속하길 바라는 마음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식탁 위에 만개한 꽃 무덤, 화훼도

민화에서는 꽃 그림을 새와 함께 그리면 화조도, 곤충과 함께 그리면 초충도로 세분화한다. 반면 새와 곤충이 등장하더라도 꽃에 중점을 둔 그림은 화훼도로 부른다. 화훼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꽃으로 모란과 연꽃이 있다. 모란이 꽃 중의 왕이라면 연꽃은 꽃 중의 군자라 할 수 있다. 진흙 속에 살면서도 더러운 물 한 방울 몸에 묻히지 않는 기품 있는 꽃이다. 이러한 특성에 연꽃은 세파에 물들지 않는 청아함과 고결한 모습을 간직한 군자에 비유된다. 또 연꽃은 꽃과 열매가 동시에 생장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아들을 얻고 싶은 염원을 화병에 꽂힌 연꽃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연밭에 촘촘히 박힌 연실은 다남을 상징한다.

[출처] 글: 행복이 가득한 집 (2010년 1월호)

그림: 자비화 홈페이지, 김현희 명장 자수

너나 잘 하세요

김기천 목사

지난 해 봄으로 기억된다. 남들이 보면 버릴 때가 지난 차(83년 Volkswagen Vanagon)를 끌고 칼라 북사기를 사오기 위해 콜로라도로 향했었다. 콜로라도 덴버 근처에 인쇄소 하던 사람이 팔겠다고 해서 급하게 집을 나섰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던 차가 그날따라 변속 기어가 작동을 잘 안한다. 4단까지 있는 차가 2단과 4단밖에 안 된다. 그래도 갈 수 있다는 쓸 데 없는 고집(?) 때문에 그냥 출발했다. 거의 8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야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머뭇거릴 여유가 없었다. 가다가 문제 생기면 고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또한 도착할 때까지 별 문제 없을 것이란 막연한 확신 때문에 변속 기어 문제는 별 거 아닌 것으로 생각되었다. 출발할 때는 2단으로 고속도로에서는 4단으로 달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사실 왕복 17시간 운전하는 동안 자동차 엔진 문제로 큰 어려움은 없었다.

문제는 다른 데서 일어났다. 날씨였다. 아직 이른 봄이라 고속도로에는 눈바람이 휘날리고 있었다. 내심 걱정이 생겼다. 지역에 따라서 눈이 내리는 양상이 달랐다. 눈이 내리지 않는 곳도 있었다. 거의 4시간을 달려 뉴멕시코 주의 마지막 도시 라톤(Raton)을 지나게 되었다. 자동차 휘발유 계기판을 보니 그래도 콜로라도 트리니타트(Trinidad)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도 "혹시"하고 생각을 하며 라톤을 지나쳤다. 사실 이전에도 휘발유 계기판을 믿었다가 길거리에서 차가 선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는 조바심 때문에 그냥 계속 달렸다. 뉴멕시코에서 콜로라도를 들어가려면 넘어야 할 높은 산이 주 경계에 놓여 있었다. 산을 다른 차들보다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 차가 거의 정상에 다다를 무렵 휘발유가 없다는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차의 엔진이 떨리면서 힘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도 정상까지는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차를 정상에 올려놓았다. 정상에 도달하자 엔진이 꺼져버렸다. 엔진이 꺼진 상태로 차를 조심스럽게 내리 몰았다. 문제는 산을 올라 올 때는 도로에 눈이 없었다. 그런데 콜로라도 쪽에는 눈이 녹지도 않은 채로 덮여 있었다. 눈 치우는 차가 도로가로 눈을 밀어 놓아 차선이 보통 때보다 좁아졌다. 모든 차들이 눈길 위로 조심스럽게 달리고 있었다.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트리니타트까지는 갈 수 있으리란 기대는 사라졌다. 조금 내려가다가 적당한 공간을 찾아 차를 세웠다. 날씨가 좋을 때는 차를 세우고 경치를 구경하라고 만들어 놓은 장소였다. 핸드폰을 꺼내어 자동차 서비스(AAA) 요청을 했다. 산꼭대기라서 그런지 신호가 잘 잡히지 않는다. 여러 번 시도한 후에 간신히 전화 연결이 되었다. 휘발유가 떨어져서 차가 섰다고 했더니 한 시간 내에 3겔론정도를 갖다 주겠다고 한다. 눈 덮인 추운 산꼭대기에서 휘발유가 없어 움직이지 못하는 차 안에서 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가스

불을 키고 차를 끓이며 음악을 켰다. 그런대로 분위기가 괜찮았다. 한 40분정도 지나자 경찰차가 왔다. 그리고는 차를 빨리 치우지 않으면 자기가 견인차를 부르겠다고 한다. 나는 곧 서비스차가 올 것이라고 했지만 경찰은 전화를 해보라고 재촉한다. 얄짤 없이 핸드폰 연결은 잘 안 되는데다가 배터리까지 죽어간다. 전화 연결은 댔다가 끊겼다가 한다. 상대방이 알아듣진 말건 빨리 오라고 내 말만 했다. 전화 건지 얼마 안 되어 서비스차가 도착했고 내 차에 주유를 했다. 어렵지 않게 시동이 걸렸다. 조심스럽게 차를 내몰았다. 눈 길 위를 엉금엉금 다른 차와 보조를 맞추어 산에서 내려왔다. 트리니타에 가까워지면서 도로 사정은 훨씬 나아졌다.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가득 채우고 목적지를 향해 달렸다. 이 후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예정보다 약속 시간이 늦기는 했지만 칼라복사기 주인은 기꺼이 나를 기다려 주었다. 감사한 것은 덤으로 약 2000불 이상 되는 제본기까지 헐값으로 내어 주었다. 칼라복사기 무게가 만만치 않았다. 남자 둘이 들어 올릴 수 없어서 부인까지 합세해야 했다. 자동차 안은 복사기와 제본기로 가득 찼다. 흔들리지 말라고 준비해간 끈으로 단단히 묶어 놓았다. 이미 어둑해진 시간이지만 지체 없이 알버커키를 향해 내리 달렸다. 낮에 고생했던 산길은 여전히 눈이 얼어붙어 있어 더욱 조심스럽게 운전했다. 자정이 넘어 집에 도착했다. 이런 고생 끝에 광야의 소리를 인쇄할 수 있는 칼라복사기가 생긴 것이다.

뉴멕시코에는 한인들을 위한 신문과 같은 대중 매체가 없다. 누가 어디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공개된 매체가 없다. 광야와 같은 뉴멕시코에서 사는 것도 황량할 터인데 한인들끼리 서로 떨어져서 연락 끊고 격리된 생활을 한다면 삶이 더욱 삭막해질 것이다. 그래서 뉴멕시코주 한인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보겠다는 것이 광야의 소리였다. 지난 일 년동안 거의 매달 발간해서 겔럽, 로스알라모스, 라스쿠르세스, 산타페, 화밍톤, 클로비스, 리오란초, 알버커키 등 뉴멕시코 주 안에 큰 도시들에 배포해왔다.

광야의 소리를 출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글을 쓰는 사람, 편집하는 사람, 인쇄하는 사람, 제본하는 사람, 가게에 배포하는 사람, 각 지역으로 발송하는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정성이 모아져서 한 부 한 부가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종이, 잉크, 인쇄기 부품, 우편 발송비 등 일체의 재정적인 부담은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에서 부담하였다. 감리교회 목사인 나는 광야의 소리를 시작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감리교회의 전유물이 아니라 뉴멕시코 한인들과 한인 교회들의 나눔의 장이 되기를 기대했었다. 그래서 작년 초에 이런 의도를 설명하면서 내가 직접 글을 부탁한 적이 있었다. 원고를 부탁하느라고 걸었던 첫 전화였을 것이다. 광야의 소리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었던 대답은 "감리교회에서 만드는 것이니 감리교회에서나 잘 하세요"란 식의 말이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너나 잘 하세요"라는 투였다.

이 후로 겁이 나서(?) 원고를 부탁하는 전화를 하지 못했다. 편집 위원들에게 맡겨버린 것이다. 감사하게도 뉴멕시코 한인회와 한글학교에서는 원고를 때 맞춰 보내주고 있을 뿐 아니라 제본과 알버커키 지역 배포를 담당해주고 있다.

2010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작년과는 달리 새롭게 살아보라고 허락한 새해라고 본다. 뉴멕시코 한인의 숫자는 다른 주에 비교해 보면 얼마 되지 않는다. 소수지만 모두 서로 마음을 열고 사랑하고 격려해주는 새해가 되기를 소원한다. 뉴멕시코주 광야의 소리가 그동안 막혔던 마음들을 연결시켜주고 뉴멕시코 안에 한인들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한다. "너나 잘 하세요"가 아니라 "우리 함께 잘 해봅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2010년을 기대해본다.

명 절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미국의 명절은 할로윈에서 시작됩니다. Halloween은 고대 켈트 족으로부터 기원된 것으로 새해와 겨울을 맞이하는 10월 31일 밤의 축제인데, 죽은 사람의 혼이 이날 밤 집에 들어온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천주교 만성절의 전날 밤이기도 한 이 밤의 축제는 지금도 미국과



영국의 연중행사 가운데 하나이지만, 근년에 종교적인 색채가 없어지고 어린이들의 즐거운 축제가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제각각 도깨비, 해적, 영화 주인공 등의 가면을 쓰거나 복장을 입고 거리를 누빉니다. 집집마다 방문하여 문 앞에서 "맛있는 것을 주지 않으면 짓궂게 장난치겠소!" (Trick or treat!) 라고 큰소리로 떠들고는 과자를 받아갑니다. 우리 내외도 이날 밤을 위해 슈퍼마켓에서 파는 커다란 할로윈 용 초콜릿 봉지를 사다 놓고 아이들을 기다렸습니다. 자기들의 취미에 따라 호박 속을 도려낸 다음 도깨비 초롱을 만들어서 담장 위에 늘어놓기도 하고, 모조해골을 나뭇가지에 걸어 두거나 허수아비를 만들어 문 앞에 세워둡니다. 내려오는 전설이나 해골을 걸어두는 풍습이 마치 우리의 동지(冬至)를 연상하게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명절무드는 그 다음 달의 추수감사절로 이어집니다. 추수감사절은 신에게 감사드리고 국경일이며, 매년 11월의 넷째 목요일로 정해두고 모두들 칠면조 요리를 즐기면서 쉽니다. 원래는 그날 하루만 쉬게 정해졌지만 앞뒤 날을 쉬어 긴 연휴를 즐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딸네 가족과 함께 추수감사절 휴가대열에 동참해보았습니다. 하루 전날 오후, 눈에 띄게 차가 많아진 고속도로를 타고 콜로라도 주에 있는 '파고사' 온천에 도착했습니다. Pagosa는 이곳 원주민들이 붙인 이름으로 '약수'라는 뜻이며, 몸에서 독

소를 빼내주고 염증을 막아준다는 유황의 함량이 물 1리터 당 1,400 밀리그램이나 되어서 온천마을에 들어서면 큰 길가의 분수에서 나는 유황냄새가 강하게 코를 찌르는 곳입니다.

추수감사절 날은 아침부터 구름이 끼었습니다. 늦은 아침식사 후 내장을 걷어낸 칠면조에 소를 잔뜩 채워 넣고 새지 않게 껴맨 다음 오븐에서 굽기 시작하고, 초콜릿 쿠키며 다른 별식도 만들었습니다. 오후 세 시를 조금 지나 모두 식탁에 둘러앉아서 잘 구워진 칠면조에 음악과 와인을 곁들인 만찬을 시작했습니다. 창밖에는 한낮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고, 하얀 눈을 인 로키 산맥의 봉우리들이 멀리서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가만 앉아있을 수 없어 밖으로 나갔더니 많은 사람이 걷는가 하면 눈덩이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빙 둘러 산이어서 바람은 잔잔하고, 소나무 사이로 난 산책길이 우리를 하염없이 걷게 만들더군요.

추석과 추수감사절은 서로 닮은 데가 많습니다. 우리의 추석인 음력 8월 보름 한가위는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길러준 대자연에 감사하는 날이요, 조상의 은공을 가슴에 새기면서 자신의 존재의 뿌리를 생각해 보는 날입니다. 이 나라의 뜻있는 사람들은 1600년대 초 이 땅에 이주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풍성한 수확을 거둔 후 3일 동안 향연을 벌여 신에게 감사 드리는 정신과, 그들이 착안한 자치정부, 근면성이라는 행동규범, 자기의존성 공동체, 독실한 종교적 신념 등을 되새기면서 추수감사절을 경축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자연은 오래 전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하늘이었으며 신이었던 것입니다.

명절분위기는 크리스마스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곧바로 전깃줄에 수많은 작은 전구를 달아 집 안팎을 장식하기 시작합니다. 전구 달린 전깃줄로 만든 양증맞은 사슴을 잔디에 세워두거나 눈사람을 지붕 위에 올려놓기도 하며, 더러 빨간 벨벳으로 꽃을 만들어 자동차에 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나눔의 명절입니다. 가족, 친구, 학교의 선생님, 어른들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하느라 모두 바쁜 모습인데, 바로 전 주말에는 평소와는 달리 자동차가 길에 가득하고, 그 넓은 백화점의 주차장에서는 차를 세워둘 곳이 없어 다른 차가 빠지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사서 보내는 선물 이외에 씹을 맛이 나게 편도 또는 호도 같은 나무열매를 넣어 초콜릿 쿠키나 케이크를 만들어 선물하기도 합니다.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크리스마스 풍속도는 가족이 함께 떠나는 여행입니다. 멀리 떨어져 살거나 이혼한 가족이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핏줄의 정을 나누기 위해서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같은 시간에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비행기 출발 두 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야 합니다. 우리도 비행기로 다섯 시간, 다시 차로 두 시간을 여행한 다음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힐튼 헤드 섬에 도착했습니다. 역사와 자연이 복잡하게 뒤얹혀있다고 알려진 인구 4만 명의

조그마한 이 섬에는 옥외의 광고판, 네온사인, 고층건물이 없고, 일광욕, 조깅, 자전거타기를 할 수 있는 12마일의 해안선에 챔피언 전을 치를 수 있는 24개의 골프코스과 300개가 넘는 일급 테니스코트가 있습니다. 겨울의 평균기온이 섭씨 15도에서 20도로 가히 천혜의 휴양지라 할만한 곳입니다. 우리는 어느 추운 겨울 새벽에 호미곶에서 몸을 움츠리며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리던 일을 얘기하면서, 힐튼 헤드 섬 해안선의 한 점에서 서서 대서양을 힘차게 솟아오르는 해를 바라보는 것으로 2009 기축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소의 해 다음은 호랑이 해입니다.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앞을 살피고 소처럼 쉬지 않고 힘차게 걸어가라 [虎視牛步]는 옛사람들의 삶의 지혜를 머릿속에 떠올려보았습니다.

알버커키와 한경직 목사

이경화 장로

한국 기독교의 대표적인 목사님으로 존경받아 온, 서울에 영락교회를 세우셨던 한경직 목사는 한국사회에 너무도 잘 알려진 목사님이지만 그가 1930년경 그의 미국 유학 시절에 뉴멕시코주 알버커키에서 2년간 계셨던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듯 하다.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된 것이 이곳 알버커키에서 폐결핵환자로 프레스베터리안 요양원에서 투병하고 계신 동안이었는데 그분이 여기 계셨던 사적자료를 볼 수가 없어서 아쉬웠으나 최근 프레스베터리안 병원의 설립100주년을 기념하는 “The First 100 Years Presbyterian” 이란 책을 편찬한 Mos Palmer여사를 만나게 되어 몇 가지 자료를 얻을 수 있었고 UNM의 도서관 자료를 통해서도 몇가지 자료를 입수했다. 1930년경의 알버커키 상황과 이곳에 한국인으로서는 아마도 최초로 왔을 것으로 보이는 한경직 목사의 그때 상황을 최근 입수한 자료에 근거해서 소개하려고 한다.

폐결핵의 어제와 오늘

한경직 목사가 젊은 시절 미국 유학 와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1929년 그가 이곳 알버키로 오게 된 것은 폐결핵이란 병 때문이었다. 그분의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당시의 결핵은 얼마나 무서운 병이었는데 연금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듯 하다. 결핵은 1943년 항생제 Streptomycin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난치의 병이었다. 오페라 “춘희(La Traviata)”에 나오는 비올레타가 폐결핵 환자로, 푸치니의 오페라 “라 보엠”에 나오는 ‘그대의 찬 손’을 부르는 미미 역시 폐결핵 환자였다. 우리가 아는 역사속의 유명했던 많은 사람들이 결핵으로 세상을 일찍 떠났었다. 몇 사람만 예로 들면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 폴 고갱, 폴란드의 피아노 작곡가 쇼팽, 이태리 바이올린 연주가 파가니니, 프랑스의 종교개혁가이며 장로교의 기초를 세운 칼빈(장 칼뱅), 독일의 시인 쉴러가 다 결핵의 희생자였다. 감리교의 초석이 된 존 웨슬리도 51세에 폐결핵에 걸려 투병생활을 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부

인 엘레노어 여사도 폐결핵의 희생자였다.

폐결핵과 알버커키

1900년 초에 알버커키 도시가 급성장했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의 동부지역에서 이주해 온 폐결핵 환자와 그 가족 때문이었다. 이곳 고지대의 건조하고 맑은 공기, 맑은 날씨에 밝은 햇빛이 폐결핵 치료에 아주 좋다고 알려지면서 동부지역으로부터 환자와 그 가족들이 이곳으로 많이 이주해왔다. 도시 인구가 1900년에는 6,238명이었는데 1910년에 거의 두 배가 되는 11,020명, 그 뒤 20년 뒤 1930년의 도시인구는 26,570명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결핵 요양원이 많이 생겨 날 수밖에 없었고 요양원이 많아지니까 더 많은 환자들이 이주하는 가속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St. Joseph 요양원이 1903년 처음 생겼고 1908년 Southwestern Presbyterian 요양원(Sanatorium)이 세워졌다. 이 요양원은 지금의 Presbyterian Hospital의 전신이 되며, 한경직 목사를 치료해 준 요양원이다. 1912년에는 Methodist Deaconess 요양원이 세워졌고 그 후 수많은 요양원이 Central 길가에 세워져서 Central Avenue를 가리켜 “Lunger’s Avenue” (Lunger는 폐결핵 환자를 일컫는 slang) 또는 “결핵의 길(Tuberculosis Row)” 이라고도 불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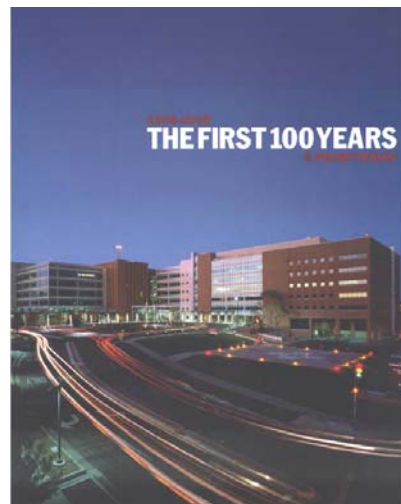


Central 길가에 세워진 프레스베터리안 요양소(1921년경 사진으로 추정함). 현재의 Presbyterian Hospital의 북쪽이 된다.
(사진제공:courtesy of forgottenabq.blogspot.com)

프레스베터리안 요양원의 설립

Presbyterian Hospital의 전신인 Southwestern Presbyterian Sanatorium이 설립된 것은 폐결핵에 걸려 오하이오에서 알버커키로 이사 와서 요양 생활하다가 완쾌되고 나서는 이곳 제일장로교회(First Presbyterian Church)를 담임 하게 된 Dr. Cooper 목사에 의해서였다. Cooper목사는 1902년 아내 Delia와 6살, 11살 된 두 아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이곳으로 내려왔다. 낯선 이곳으로 내려온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난치의 병 폐결핵에서 살아나는 것이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치유의 은사를 기원했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아 2년 뒤에 쿠퍼목사는 완쾌되었고 제일장로교회를 담임하게 되었다. 교회도 갑자기 성장하는 축복을 받아 오래된 작은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크게 지어 1906년에 봉헌했다. 그의 열정은 교회성장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병 고침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보답하기 위해 이곳에 몰려오는 가난한 결핵환자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고 결심했다. 그는 교단을 통해 요양원 설립을 역설하였고 그의 안이 곧 채택되고 드디어 이곳에 먼저 세워진 St. Joseph 요양원에 이어 두번째가 되는 프레스베터리안 요양원을 1908년 설립하게 되었다. 이 요양원에서 환자를 받을 때 환자의 종교나 재정상황으로 차별하지 않았던 것은 특기할 사항이다. 그런 까닭에 요양원의 재정은 어려움을 피하기 어려웠지만 쿠퍼 목사는 열정적으로 교단을 통해서 또는 동부지역 순회강연을 통해서 선교자금조달을 호소하고 재정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교회담임을 사임하고 요양원 일에만 전념하게 된 것은 1927년이였다. 그는 요양원 운영에만 만족하지 않고 결핵 퇴치를 위한 부설 의학연구소의 설립까지 추진했다. 세탁기 브랜드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Maytag 회사 사장 Frederick L. Maytag는 쿠퍼목사를 도와 Maytag Research Laboratory를 요양원 옆 Oak



Central 길에 오늘날의 프레스베터리안 병원모습. 100년사 책의 표지.
(Courtesy of “1908-2008 The First 100 Years Presbyterian” By Mo Palmer and Bill Beck)

Street에 1931년에 짓게 되었다. 이 건물은 그 당시에 지은 건물 중, 지금까지 남아있는 두개의 건물 중의 하나가 되었다. 요양원은 그 당시 미국의 경제공황 속에서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종합병원으로 발전해 나갔다. 100주년을 넘긴 오늘의 Presbyterian병원은 뉴멕시코주에서 가장 큰 병원으로 발전되어 PHP보험 가입자 439,000명의 건강을 지켜주는 기관이 되었다.

유학생 한경직의 투병

영문판으로 발행된 한경직 목사의 전기저서 “Just Three More Years To Live!”와 우리말로 된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란 책에 의하면 한경직 목사는 숭실대학을 졸업한 후 방위량(Blair)선교사의 격려와 윤치호 선생의 도움으로 미국유학을 오게 되었다. 1925년 그의 나이 24세때 처자를 두고 부산항을 떠나 요코하마로 가는 배를 타면서 미국유학의 길이 시작되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뒤 켄사스로 와서 엠포리아 대학에 학사과정으로 입학 후, 일년 뒤 졸업하고 뉴저지주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 석사과정으로 입학, 1929년 석사를 마치고 곧 예일대학으로 가서 박사과정으로 진학하려고 했었다. 그의 뜻대로 되었다면 그

보다 4년 앞서서 프린스턴을 졸업하고 예일에 가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귀국해서 연세전문학교의 교수가 된 백낙준박사와 같은 길을 갔을지도 모른다. 사실 한경직은 그때까지도 목사가 되겠다는 꿈은 없었고 교회 역사를 가르치는 신학교수가 되려는 꿈으로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그 꿈이 깨어지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 그의 폐결핵이었다. 유학생 생활 하면서 학비와 생활비 조달을 하느라고 밤낮 없이 과로했던 탓인지 폐결핵에 걸리고 말았다. 미시간주에 있는 요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자 했으나 결핵 3기의 환자를 그곳에서는 치료하기 어려우니 뉴멕시코주 알버커키에 있는 Southwest Presbyterian Sanatorium에 가서 치료받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이곳 Dr. Cooper 원장에게 소개를 해주었고 또 프린스턴 신학교 학장도 추천의 편지를 원장에게 보냈었다. 요양원의 쿠퍼목사는 목회자 환자를 위한 방 하나를 비워 유학생 한경직을 받아주어서 1929년 알버커키 최초의 한국인으로 그는 기차를 타고 내려와 센트럴 길가에 있는 요양원에 무료환자로 입원한 것이다. 그 당시 미국 내의 일반적인 요양원 환자의 통계를 보면 폐결핵 환자의 50%는 요양원에 입원해도 살아서 나오질 못했다고 하니 한경직은 절망에 가까운 심정으로 고향에 계신 아버지와 아내, 딸에게 유서로 편지도 보냈다고 한다. 그리고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 아래 자신의 야망과 명예를 추구해온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서원기도를 했다고 한다.

“3년만 더 살 수 있게 해주시면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진 빚을 갚고 죽겠습니다.” 란 서원기도를 한 것이다. 기적이었다. 미시간주 Battle Creek Sanatorium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포기했던 환자가 이곳에 와서는 치유의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치유가 의사가 기대한 만큼 빠른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1930년 요양원에서 발행한 뉴스레터 “The Sanatorium Quarterly (September, 1930)” 에서 이런 토막글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글은 요양원에 입원중인 환자 네 사람을 도와달라는 호소문이었는데 그중 하나가 한경직 환자를 이야기하고 있다. 원문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다.

「Here is a young man, a Korean, a graduate of Princeton Seminary, planning to return to his people as a missionary. He had been a patient in our Ministers Cottage but his term expired and there was a long waiting list for places in the Cottage. His doctors want him to stay on another six months. He is a consecrated young man, highly thought of by all and a splendid influence.」

그가 환자로 있으면서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젊은 신앙인이었음이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다. 의사의 진단은 6개월의 연장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았으나 실제로는 1년 정도 더 체재해서 1931년 퇴원을 했고 추가로 6개월의 요양을 콜로라도 덴버에 가서 보낸 후 1932년 귀국한 것을 보면 회복하는 데에

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한목사의 자서전에 보면 이곳 요양원에 계셨던 분 중 특별히 감사드려야 될 분으로 두 분의 이름이 나온다. 한 분은 그를 입원시켜준 원장 Dr. Cooper 목사였고 또 한분은 친절했던 간호원 Mrs. Marion Van Devanter이다. 이번 사료를 제공해주신 Mo Palmer여사를 통해 알게 된 것은 Mrs. Devanter는 간호사가 아니고 원장의 비서이면서 사무직으로 봉사했던 분이였음을 알게 되었다. Mrs. Van으로 널리 알려진 이 여인은 폐결핵 환자였던 남편을 따라 이곳에 왔으나 남편이 투병에서 이기지 못해 남편과 사별했으나 그 뒤에도 이곳에 남아 평생동안 요양원을 돕고, 특히 환자의 뒷바라지를 해주는 일을 70여년간 해온 여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주일엔 교회성가대에서 봉사했고 주중에는 요양원의 일반 사무직 외에도 환자의 식탁에 짧은 성경구절을 쪽지에 적어 올리기도 하고 환자의 정신적 위로와 격려를 주는 일에 크게 노력했다고 전한다.



(왼쪽)요양원 환자로 있을 당시의 한경직 목사.

(중앙)요양원 원장 Dr. Cooper 목사.

(오른쪽)요양원 원장실의 비서이면서 사무직을 맡았던 Mrs. Van. (Courtesy of Mo Palmer's 'The First 100 Years Presbyterian')

환자 유학생 한경직은 폐결핵에서 완쾌되어 1932년 귀국하여 평양으로 가서 송인 상업학교 교목이 되었다가 신의주 제2교회로 가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해방 후 월남해서 영락교회의 전신인 베다니교회를 세우고 27년간 시무하셨다. 대광 중·고등학교를 세웠고 숭실대학을 재건했으며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초교파적으로 하는 일을 성공시켰고, 홀트 양자회, 세계선명회, 영락모자원등 그 분이 한국사회와 종교계에 기여한 사실이 너무나 많았다. 그 많은 업적의 결과로 나타난 것 중 하나가 1992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템플턴상을 독일 베를린에서 수상받은 것이다. 한 목사 이전에 이상을 수상 받은 사람으로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 1982), 테레사수녀(Mother Teresa: 1973)가 포함된다. 3년만 더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기도를 드렸던 한경직 목사님은 2000년 4월19일 98세의 일기로 소천 하셨다.

요양원의 “The Sanatorium Quarterly” 에서 또 한 가지 자료를 Mos Palmer여사가 발견했다. 1953년 3월호 뉴스레터 기사인데 제목을 “Our Kyung Chik Han and Billy Graham” 으로 올리고 쓴 글인데 이를 우리말로 옮기면 아래와 같다. 원문도 옮겨본다.

「“장로교인의 생활(Presbyterian Life)” 이란 잡지의 최근호에 발표된 뉴스에 의하면 우리 요양원의 환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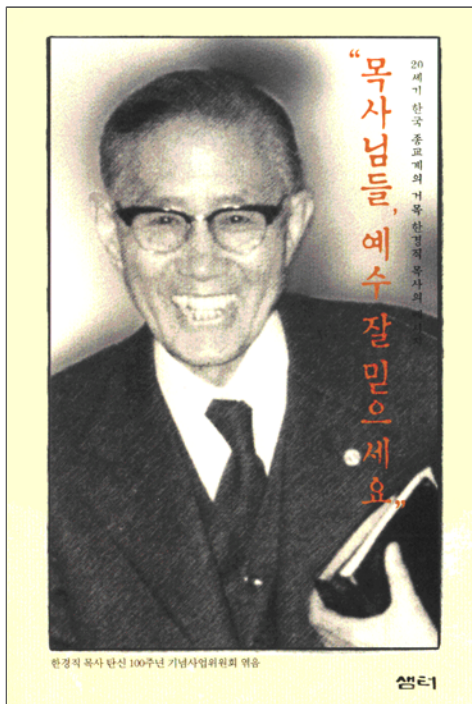
있었던 한경직(그가 이곳 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한국 집회를 도와 통역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두 분에게 모두 이번 한국 집회는 분명 설레이는 일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하 생략)

We are delighted to see in a recent issue of that our former patient (Those days with us are still very bright in our hearts) was the interpreter for Billy Graham on his recent visit to Korea. We know that this was a thrill for both of them, and we rejoice that Mr. Han, together with many other Koreans, had fellowship with this man of God. We know it was a time of inspiration for all.

오늘의 알버커키와 우리들

한경직 목사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된 것이 그가 가장 약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였고, 그것이 다른 곳이 아닌 알버커키 프레스베터리안 요양원에서 일어난 사실을 확인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도 같이 그가 가장 약할 때 그는 강해져서 건강만 찾은 게 아니고 평생 동안의 어려운 목회 생활을 할 수 있게 한 힘을 알버커키 요양원 병석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었다. 그 분이 다녀간 지 80년이 된 오늘 이 곳 도시는 인구가 그때와 비교할 때 30배가 넘는 도시로 변했다. 그 당시엔 한국인은 그 분 혼자였으나 이제 이곳에 사는 한인이 천명이 넘고 한인교회도 여럿이 되었다. 그리고 지난 수십년동안 이 도시에 잠시 살다가 간 한인들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러나 이곳 알버커키에서 과연 한경직 목사만큼의 은혜를 체험하고 인생의 큰

전환의 계기로 삼은 한국인은 몇이나 될까 생각해 보게 된다. 오늘 이곳에 사는 우리들은 80년 전에 한인 유학생 한경직에게 축복의 기적이 이곳에서 일어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내리길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2010년 새해를 맞이하자고 권하고 싶다. 끝으로 프레스베터리안 요양원 자료를 제공



한경직목사 탄신 100주년 기념 책자의 표지

해주신 Mos Palmer 여사와 한목사님의 관련자료를 영락교회에서 입수해서 제공해주신 최성원 집사님께 감사한다. 영락교회를 섬기다 오신 최성원 집사님은 UNM 의과대학에서 폐결핵에 관련되는 연구를 하고 계신 박사님이시다.

How things have changed since the Korean War Korean construction company built Burj Khalifa Tower, tallest world



The Taipei101 building is seen in hazy weather January 4, 2010. Outdone by a tower extending over 800 metres in Dubai, the world's former tallest building, Taipei 101, wants to become the highest green structure by completing a checklist of clean energy standards, a spokesman said on Monday.

세계 최고 높이의 건물인 부르즈 두바이의 이름이 2010년 1월4일(현지시간) '부르즈 칼리파(Burj Khalifa)'로 전격 교체됐다. 칼리파는 아랍에미리트(UAE)의 현 대통령 이름인 셰이크 칼리파 빈 자이드 알-나흐얀에서 따 온 것이다. 부르즈는 아랍어로 탑이라는 뜻이다. 셰이크 모하메드 두바이 통치자는 이날 부르즈 칼리파 야외 특설무대에서 열린 개장식에서 "오늘 UAE는 인류 최고 높이의 건물을 갖게 됐다"며 "이 위대한 프로젝트는 위대한 인물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난 부르즈 칼리파의 개장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름 교체는 개장식 직전까지도 극비 사안으로 다루졌다. 시행사인 에마르(Emaar)사는 이날 오전 공식 보도 자료를 배포할 당시에도 모든 문서에 건물 이름을 부르즈 두바이로 표기했다. 에마르사는 이름 교체 배경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는 상태다. 다만 두바이가 채무 상환 압박 속에서 UAE 수도 아부다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명칭 변경은 아부다비 통치자이기도 한 UAE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아부다비 정부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두바이에 250억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한편 부르즈 칼리파의 최종 높이는 828m로 확정 발표됐다. 이는 기존 최고 건물 타이베이101(508m)보다

무려 320m가 높은 것이다. 2005년 2월 착공 이후 12억 달러의 공사비가 투입된 부르즈 칼리파는 1~39층은 호텔, 40~108층은 고급 아파트, 109층 이상은 사무실로 이뤄졌다.

Burj Khalifa (Burj Dubai), the world's tallest building, seen at centre, in Dubai, United Arab Emirates, Sunday, Jan. 3, 2010. Burj Dubai is over 800 metres (2,625 ft) tall and has more than 160 stores, the most of any building in the world. Besides an observation deck on its 124th floor affording 360-degree views of the entire city, Burj Dubai is home to the world's first Armani Hotel, luxury offices and residences, and a variety of other sophisticated leisure and entertainment facilities. Burj Dubai will



The Burj Dubai, the world's tallest building casts a long shadow onto the ground in Dubai, United Arab Emirates, Monday, Jan. 4, 2010. Burj Dubai is over 800 metres (2,625 ft) tall and has more than 160 stories, the most of any building in the world and has an observation deck on its 124th floor with 360-degree views of the entire city. The Burj Dubai is home to the world's first Armani Hotel, luxury offices and residences and will ultimately be the place of residence, work and leisure for a possibly encapsulated community of up to 12,000 people

ultimately be the place of residence, work and leisure for a community of up to 12,000 people.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시공한 세계 최고층 빌딩 '버즈 두바이'가 2010. 1. 4일 오후(현지시간) 빌딩 내 아르마니호텔 개관으로 사실상 준공됨에 따라 세계 빌딩 건설역사에 각종 신 기록이 쏟아졌다.

버즈두바이는 162층에 높이가 818m(추정)로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높은 건축물로 등극함은 물론 동원된 장비와 자재, 기술 등 각 부문에서 '최고' '최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2만5000km=버즈 두바이 빌딩에 사용된 철근을 한 줄로 이으면 2만5000km로 지구 적도를 따라 반 바퀴(약 2만km)를 훌쩍 넘는다. 사용된 철근의 총 중량도 3만 1400t에 달한다.

♣36만m³=버즈 두바이 빌딩에 타설된 콘크리트 총량은 36만m³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바닥면적 17층을 쌓을 수 있는 양이다.

♣14만2000m²=버즈 두바이 빌딩의 아름다운 외벽은 2만8261개의 알루미늄 커튼월 덕택이다. 얇디얇은 알루미늄이지만 건물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이를 모두 합한 무게는 초대형 여객기인 에어버스 5대를 합친 정도

다. 외벽에 마감된 유리의 총 면적도 국제규격 축구장 면적의 17배인 14만2000㎡에 달한다

♣1만2000명=버즈 두바이 빌딩 건설에 약 5년 동안 연 인원 850만 명이 투입됐다. 이는 하루 평균 1만2000명이 투입된 것이다.

♣820m=건설공사장에 투입된 타워크레인의 와이어(쇠줄) 길이가 820m, 인양 속도는 초속 220m, 가설 호이스트(공사용 승강기) 높이는 415m에 달했다.

♣636m=버즈 두바이 빌딩 내부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총 58대이며 이 중 침탑관리용 엘리베이터는 높이가 636m다. 또 124층의 전망대 전용엘리베이터의 승강 속도는 초속 10m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124층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50초에 불과하다.

♣1204가구=버즈 두바이 빌딩에는 이 밖에 서비스드 레지던스 304가구와 아파트 900가구 등 총 1204가구가 들어섰다. 단일건물 내 주거가구 수 기준 최대다.

이 밖에 버즈두바이 빌딩 건설에 동원된 신기술·신공법도 자랑거리다. 삼성물산은 80MPa의 초고강도 콘크리트(일반 아파트용 콘크리트의 3배)와 601m(150층)의 콘크리트 수직압송기술 등을 개발·적용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건물을 짓는 데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3대를 이용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측량을 도입, 오차를 5mm 이내로 줄였다.

【출처】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 칼리파(Burj Khalifa)=버즈 두바이
작성자 Theophilus 데오빌로

팔푼이의 자랑

김준호 장로

나는 우리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의 자랑거리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그런데 시작하기도 전에 다음과 같은 우려가 앞선다. 어떤 이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제아무리 좋다고 자랑해 봤자지 그게 그건데 무엇이 대단하다고 말 많으냐” 라고 반박을 하거나 어떤 이들은 “감리교회는 아주 쌀쌀맞은 교회, 박사들만 행기는 교회, 신자들을 차별하는 교회다” 라며 우리 교회를 비난하지나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다.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마음이 시큰둥해지고 어찌면 나를 두고 하는 말 같아서 마음이 상한다. 사실 내 성격이 못돼먹어서인지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사교성이 빈약해서 좀 무뎡뎡하고 통명스럽다는 평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누가 우리 교회를 혈뜰으면 자책감에 “또 얻어 맞았구나 어찌면 좋지” 하며 반성하게 된다. 나는 요새 그런 분위기를 읽어보려고 가끔 Joke도 하며 목에 힘을 빼고 사람들을 대한다. 가벼운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대방과 가까워지려는 마음으로 하는 행동인데 상대방이 알아줄지가 문제다.

어떤 이는 자기 부인을 자랑하는 자를 팔푼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칠푼이도 있겠고, 육푼이, 구푼이도

있을 것이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이는 안사람이 아니므로 No푼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다. 우리 교회에는 보통 청년같이 키가 중간이고 체중도 중간인데 인상은 장모님 마음에 꼭 들 정도로 여유 있고 느긋한 특별한 분이 있다. 그 분이 처음 우리교회에 나왔을 때 “아~ 그분 괜찮지” 하고 느꼈다. 그런데 자주 만나고 이 일저 일로 접촉하다 보니까 괜찮은 정도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여기로 온 분이? 동부 어디에서 공부를 마치고 일을 하다가 알버커키와 기막힌 인연이 있어서 왔다는 것이다.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나 되나 따져 보았다. “Oh My God !” 놀랍게도 60년이 넘는 것이다. 이렇게 긴 세월을 직장을 다녔다면 밥그릇 수로만 셈해도 무슨 감투 하나쯤은 땀었을 것이다. 그런데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 크게 내놓을 것이 없다. 어디로 도망쳐서 숨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성경에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고 하지 않았나! 꼭 맞는 말이다. 신앙 생활은 내가 먼저 시작했지만 요즘은 우리 교회 젊은 청장년들이 신앙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 내심 이들의 열심을 통해 교회가 든든해지고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참으로 감사할 일이다.

사도행전에 바울이 회심한 이야기는 많은 신도들에게 큰 힘을 더 해주는 좋은 예가 된 다. 바울은 많은 기독교인들을 찾아내서 씨를 잘라 버리려고 살기등등해서 다 매씩으로 가다가 우리 주님에게 한방 얻어 맞고 꺼꾸러져 회심한 것을 보면 그야 말로 통쾌한 일이다. 그의 회심은 기독교에 큰 변환점이 되었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그 뿐인가 우리 주님께 사명을 받은 바나바는 천리길을 마다 않고 다소로 가서 바울을 설득해서 안디옥 교회로 끌어 들였다. 유대인 전도의 중심인 예루살렘과 달리 안디옥은 이후 이방인 전도의 요새가 되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신도들은 바울이 회심 한 것을 의심하였다. 바울이 간계를 쓰는 것이 아니냐며 모두 부정적인 반응으로 바울을 배척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생명을 걸고 바울을 변호했다. 만일 바나바가 이들을 설득하지 못했더라면 우리 기독교는 오늘의 모습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런 희한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 이런 아슬아슬한 이야기는 구약에도 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고 왕에게 진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던 것은 참으로 놀랍고 감명 깊은 이야기이다. 나는 우리 교회에도 에스더처럼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할 만큼 완벽한 믿음과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들이 있다고 본다. 그게 누구일까? 향수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감미롭게 풍기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있다.

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교회에 나는 애들을 놀리고 비웃고 조롱하던 때가 있었다. 그 때 그저 재미가 나서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아주 고약한 심보였다. 한번은 교회에서 있었던 부흥회에 참석했을 때

이런 나의 잘못된 행동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참회를 했었다. 그 후에 나는 내 나름대로 나의 과거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노방전도도 하였다. 교회 앞에서 그리고 서울역에 나가 전단을 뿌리며 전도를 하였다. 성경도 잘 모르던 때였지만 겁도 없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내 앞에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 보세요” 라며 전도했었다. 그런 일을 하면서 나의 신앙심이 조금씩 다져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한국 영화 중에 “피아노 치는 대통령” 이 있다. 아주 코믹한 줄거리로 짜여 있는데 안성기씨와 최지우씨가 열연을 했다.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재미있게 보았다. 미국 영화에도 비슷한 테마를 다루는 “American President” 가 있다. 이것 또한 fun movie 라고 생각하는데 좀 유치하다고 하는 평도 있다. 하기는 모든 사람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피아노 잘 치는 집사님, 피아노 뿐만이 아니라 기타도 치는 목사님, 하모니카 부는 장로님, 가야금 켜는 성도님, 트럼펫 부는 권사님, 독창 잘 하시는 성도님, 20여 년동안 매 주일 빠짐없이 강단에 꽃을 봉헌 하시는 권사님들, 매 주일 점심 밥상을 차려 주시는 권사님과 집사님들, Bean counter를 하시는 권사님과 집사님들, 대작을 창작하시는 화가 집사님, 음식점들을 경영하느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에 봉사하시는 권사님, 집사님과 성도님들, 여러 가지 Business를 하시며 봉사하는 분들, UNM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들과 연구원들, 주일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신앙심을 심어주려고 열심히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이 밖에도 남에게 알려지지 않게 숨어서 헌신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다.

참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아픈 허리로 고통을 겪어왔던 한 집사님이 간증하셨던 것이다. 새벽 예배에 목사님의 은혜 넘치는 설교를 듣고 나서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절박한 마음으로 허리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허리가 나았다고 했다. 나는 그 간증을 듣는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솟구쳤다. 이런 귀한 신앙체험이 우리가 항상 예배드리는 예배실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오! 주님, 우리도 그런 체험을 가지게 하옵소서” 라며 기도드렸다. 나는 우리 주님이 병든 환자를 고치실 때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노라” 란 말씀을 생각했다. 이런 신앙경험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믿음 있는 그 집사님 사이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본다.

사람은 한가지만 잘하면 성공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분은 정녕 성공한 것이다. 그 분은 한 가지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탁월한 솜씨를 보인다. 예를 들면, 심방 가는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자동차를 손수 고칠 뿐 아니고 아예 엔진까지 바꿔치기를 할 만큼 재주가 월등하고, 목소리는 파바로치를 따라가고, 컴퓨터에 대해 물어 보면 답변을 잘 해주시고, 우리 뽕쟁이들이 자랑하는 전자회로를 말할 때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듣기도 한다. 교회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Superman이 나타난 듯 아주 시원시원하게 하신다. 그 분의 집에 가보면 green house 를 만들어 놓았는데 프로가 만든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근사하게 되어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들기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철통같이 믿는 분이다. 이런 분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분은 하늘나라 가는 길을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신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알버커키 아니, 미국 전역에 또 있을까? 물론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을 팔푼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내가 팔푼이 소리를 들어도 우리교회가 이렇게 자랑스럽고 좋으니 어찌하랴.

믿음에는 학력도 필요 없고 지위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단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탐구하고 하신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에 성경을 잘 풀이해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다. 성경에 해박하신 분,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정확한 Point를 가지고 지적해 주시는 분, 우리 생활에 가장 소중한 점들을 계속 강조하시는 분 등이다. 이런 분들이 있기에 우리들의 믿음이 탄탄해 지고 시냇가에 나무들처럼 잘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사랑은 희생이 따라야 됨을 상기시켜 준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까닭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말로만 그저 주어져요!라고 찾지만 해서도 안 된다. 또 “I love you , Lord” 라고 말로만 해서도 안 된다. 행동과 희생이 따라야 하는 사랑을 해야 한다. 미국 사람들은 평상시에 I love you 라는 표현을 자주 한다. 우리들은 습관이 안 되어서 그런 말을 하면 쑥스럽고 어색하다. 우리들은 미국으로 이민 온 이방인들이

PARK Fine Art
The Galeria 20 First Plaza NW Suite 27
Albuquerque, NM 87102

문화 센터 강의 안내

성인, 주부취미반 (유화-oil painting과 파스텔화) 입시반 (포트 폴리오준비반, 뎃생반)

강사: 박 영숙
서양화가, 갤러리 Director,
UNM CE oil painting 강사

□ 자세한 안내 문의 □

갤러리: (505)-764-1900 휴대폰: (505)-681-3859
www.parkfineart.com E-mail: contact@parkfineart.com

다. 우리들만의 고유한 한국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 풍습도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고 본다.

내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사랑은 신자들 간에 허심탄회하게 마음이 통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해타산이 없어야 한다. 서로 간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만일 상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닮아 상처를 신앙으로 극복해야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상처 뿐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사람들 간에 어떤 갈등이나 상처가 생기더라도 교회에 나와야 치유를 받을 수 있다. 하늘 특히 알버커키의 하늘을 바라보라. 얼마나 넓은가. 우리도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면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넓어질 수 있다. 이런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 믿는 자들의 힘이며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인 교회는 화해와 용서의 용광로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실천할 때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나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고 장담한다.

“야, 팔푼야, 고만해라” “OK”. 내 귀가 가렵기 시작한다. 누가 내 말을 하고 있는가 보다.

“어떠한 방”

(이 간증은 17살인 브라이언 이란 아이가 사고를 당해서 죽기 바로 전에 쓴 글입니다. 이글의 내용은 이 아이가 천국에 가서 어떠한 방을 방문하고 온 내용입니다.)

저는 꿈과 현실의 중간 정도에서, 어떠한 방안에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쪽벽면이 작은 카드들이 꽂혀 있는 서류 정리함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생김새는 꼭 도서관의 제목이나 저자나 주제별 책들이 알파벳 순서대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파일들은 땅에서부터 천장까지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로나 아래로나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점점 그 파일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갈 때, 처음으로 제 관심을 끈 것은 “내가 좋아했던 여자 아이들” 이란 글 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열어서 한 장 한 장 넘겨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곤 저는 그것을 재빨리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에 써져있던 이름들을 다 기억해 내고 있던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음에도, 전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생명체라고는 없는 이 방은 작은 제 인생의 그대로의 목록들을 저장하고 있는 방 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제가 행했던 모든 행위들을 다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들이 크거나 작거나, 세부하게 하나씩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료들을 딱치는 대로 열어서 보았을 때의 느낌은, 놀랄만하며, 신기하며, 동시에 소름끼치며 제 안의 모든 것들이 흔들렸습니다. 어떤 자료들은 지난세월 따스함과 즐거운 기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너무나도 창피하고 후회스러워 누군가가 내 뒤에서 보고있지는 않나 해서 내 어깨 너머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친구들” 이라는 파일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내가 배반한 친구들” 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들은 일렬로 죽 있었습니다. “내가 읽은 책들”, “평안함, 위안을 주었을때”, “내가 웃었던 농담들”, 어떤 것들은 너무나도 정확한 나머지 웃음까지 나왔습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 고함질렀던 것”.

그 밖의 것들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화가 났을 때 했던 것들”, “내가 나의 부모님들 앞에서 중얼거리며 속삭인 말들”, 그 안에 써 있던 내용물들 때문에 놀라움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많은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온 인생 때문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말인가, 내가 살아온 시간동안에 몇 천개의 아니 몇 백만 개의 카드들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 하지만 각각의 카드는 이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각각의 카드는 저의 필기체로 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제 싸인이 써져 있었습니다.

저는 “내가 본 T.V 쏘” 라고 써져있는 파일을 꺼내보았습니다. 저는 이 파일들이 그거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담기 위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카드들은 단단히 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3 야드 후에는 저는 파일의 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닫았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제가 본 T.V 쏘들의 질 때문이라기 보단, 제가 본 T.V 의 시간이 너무나도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탐욕스러운 생각” 이라는 파일 앞에 왔을 때, 제 온몸은 떨렸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1 인치만 열었습니다. 저는 이 파일의 크기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카드 한 장을 꺼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자세하게 적혀 있는 내용에 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때의 그 순간이 기록되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메스꺼웠습니다.

한편으론 이런 마음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아무도 이 카드들을 봐서는 않되!! 아무도 이 방을 보아서도 않되!! 나는 이 방을 없애버려야겠어!! 저는 극도로 흥분하여 파일들을 잡아 당겼습니다. 크기가 얼마만큼 컸던 간에 저는 이 카드들을 다 꺼내어 불태워 버려야 했습니다. 제가 파일들을 잡아 당겨서 바닥에 내려치기 시작했지만, 저는 단 하나의 카드도 없애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카드 하나를 꺼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찢어 버리려 할 때, 저는 그 카드가 쇠처럼 단단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좌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무력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다시 그 있던 곳에 넣었습니다. 저는 제 이마를 벽에 기대었습니다. 저는 가련해 보이

{종교 소식}

로스 알라모스 교회 (Los Alamos, Santa Fe)

노강국 목사님

주일에배 1부

§ 시간: 11:30 am

§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에배 2부

§ 시간: 2:00 pm

§ 장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매달 넷째 주일은 연합예배입니다.

§ 시간: 11:30 am

§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박종인 전도사님

주일에배

§ 시간: 11:00 am

§ 장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11

목요일 6:00 pm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님

주일에배 (Worship)

§ 11: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in English)

§ 10:00 am (Sunday)

수요일예배 (Wed. Night Worship)

§ 7:30 pm (Wednesday)

새벽기도회

§ 5:30 am (Mon-Fri)

§ 6:00 am (Sat.)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님

주일에배

§ 시간: 12:00 am (한국어 예배)

1:00 pm (Indian 영어예배)

§ 장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 연락처: 505-453-5461

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후 저는 보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함께 나눈 사람들". 이란 제목을.. 잡아당기는 손잡이가 다른 것들의 손잡이 보다 더욱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거진 사용하지 않은 새 손잡이였습니다. 저는 그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3 인치도 안 되는 카드 박스가 제 손안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카드의 수를 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깊이 운 까닭에 아파왔습니다. 그 아픔은 제 배에서 부터 시작해서 저를 꿰뚫어 지나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저는 창피함에 울었습니다. 저를 앞도하고 있는 창피함이었습니다. 눈물이 가득고인 제 눈 때문에 줄지어 있는 과일 선반들이 흔들려 보였습니다. 아무도, 절대로 이 방을 알아서는 안 돼! 나는 이 방을 잠가 놔야해, 그리고 열쇠를 숨겨 놔야해, 그러나, 그런 후 제가 눈물을 닦은 후 "그분"을 보았습니다.

안 돼, 제발, 그분이면 안 돼...이곳은 안 돼...어떤 사람이라도 좋와, 하지만 예수님만은 안 돼.. 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이 예수님이 그 파일을 열어 카드를 꺼내 보시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어떠한 반응을 할지에 대해서 건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조금 후에 저는 그분의 얼굴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얼굴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슬픔보다 더욱더 깊은 슬픔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최악의 카드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 주님은 모든 것들을 읽어야해? 드디어 방 저편에서 부터 주님은 몸을 돌려 저를 보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저를 화가 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얼굴을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제 손으로 가리고 또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제에게 걸어오셔서 그분의 팔로 저를 감싸 주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님은 저와 함께 우셨습니다.

그런 후 그분은 일어나셔서 다시 그 파일들이 있는 벽 쪽으로 가셨습니다. 방 한쪽 끝에서 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한개의 파일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각각 하나하나의 카드에, 제 싸인 위에 그분의 싸인을 하셨습니다. "안돼요", 저는 소리를 지르며 서둘러 그분께 갔습니다. 저는 그 카드들을 그분의 손에서 빼았으며 "안돼요", 안돼요" 밖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런 카드위에 있으면 안돼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싸인이 이미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듯한 검고도 빨간 색으로...예수님의 이름이 제 이름을 덮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피로 써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친절하게 카드를 빼앗으셨습니다. 그분은 슬픈 듯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싸인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저는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싸인을 하셨는지 절대 이해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그리고 순간 저는 주님이 마지막 파일을 덮고 제 쪽으로 다시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손을 제 어깨에다 올리시며 말씀하시길,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를 방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아무것도 써 있지 않은 카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화려한 색의 먹거리 속에 타르색소 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임상영양팀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소비자 단체와 언론 등에서 종종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식품에 사용되는 식용타르색소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9년 3월 캔디류, 빙과류, 초콜릿류, 탄산음료 등의 식품에 식용타르색소 일부의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먹을거리 안심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하나로,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 중의 하나로 생각됩니다. 화려하고 알록달록한 색깔로 우리를 유혹하는 타르색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르색소란 무엇인가요?

타르색소는 식품의 조리나 가공, 저장 중에 퇴색하기 쉬운 식품 고유의 색을 유지하고 식품을 더욱 맛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입니다. 타르색소는 석탄의 콜타르에서 추출한 벤젠, 톨루엔, 나프탈렌 등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지고 이들은 주로 아이스크림, 음료수, 껌, 과자, 사탕 등의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탕을 먹은 후 혀의 색깔이 사탕과 같은 색으로 변했다면 타르색소가 많이 든 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식품에 타르색소를 사용할 수는 없으며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을 법으로 정해 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품첨가물공전에 따르면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조제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에는 타르색소를 사용할 수 없으며, 면류, 단무지, 김치 등과 같은 일부 국민 다소비 식품을 포함하여 천연식품 46개 품목(식품첨가물공전 2006)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타르색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허용된 색소는 타르색소 9종, 타르색소의 알루미늄레이크 7종, 비 타르색소 8종 등 모두 24종입니다. 그 중 타르색소에 대해 알아보면, 타르색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부 타르색소가 인체에 간독성, 혈소판 감소증,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축적되어 다량 복용 시 각종 질병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습니다. 식용색소 적색2호의 경우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미국 및 여러 국가들에서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사탕, 초콜릿, 껌 등에 사용되는 적색 제3호는 쥐 실험결과 갑상선 종양발생과 관련이 있고, 빵, 건과류, 잼, 아이스크림 등에 사용 되는 적색 제4호 또한 동물실험에서 암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황색 제4호(빵 및 떡류, 건과류, 사탕류, 잼류, 아이스크림류 등에 사용)는 유럽연합에서 천식유발물질로 간주되어 있고, 청색 제1호(사탕류, 초콜릿류, 껌류; 녹색계, 청색계 식품에 사용)는 어린이들에게 활동과다를 일으킬 수 있어 섭취를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사용이 허가된 타르색소일지라도 그 안전성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어 세계적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에 섭취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타르색소 섭취량은 어느 정도이고, 체내에서 안전한가요?

2006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한 타르색소 섭취량조사 결과 중 식용색소 황색 제4호 함유량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사탕 1개 (약 5g)에 약 0.0138mg이 들어 있습니다. 식용색소 황색 제4호의 일일 섭취 허용량은 체중 1kg당 최대 7.5mg으로 체중이 20kg인 어린이의 일일 섭취 허용량은 150mg(20kg * 7.5mg)이므로 이 어린이가 일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하여 식용색소 황색 제4호를 섭취하려면 하루에 사탕을 10,870개나 먹어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타르색소 역시 식품 내 함유량이 식용색소 황색 제4호와 비슷하게 매우 낮았습니다. 따라서 현 섭취수준에서의 위해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르색소가 체내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축적된다는 보고를 고려할 때 일일 섭취량은 기준량을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타르색소가 함유된 식품을 장기간 섭취할 때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타르색소의 섭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식품을 구입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건강소식 SNUH WEBZINE

1.가공식품 구입시 뒷면에 표기되어 있는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가능한 ‘합성 착색료(Food Coloring Agent)’ 또는 ‘황색4호’, ‘황색4호 알루미늄레이크(Food Yellow No.4 Aluminium Lake)’로 표시되어 있는 식품의 선택을 줄입니다.

2.특히 화려한 색깔의 가공식품은 타르색소를 더 함유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피합니다.

3.타르색소에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어린이에게도 이와 같은 사항을 교육시켜서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식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식시킵니다.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A-1 Oriental: 1410
Wyoming NE, Albuquerque
(505-275-9021)

Arirang Oriental: 1826
Eubank NE, Albuquerque
(505-255-9634)

Dinho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lbuquerque
(505-883-2665)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lbuquerque
(505-296-8568)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lbuquerque
(505-255-9634)

Fu-young 3107 Eubank #16
NE, Albuquerque
(505-298-9889)

Fuji Yama: 5001 Central
Ave NE, Albuquerque
(505-265-9774)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lbuquerque
(505-899-0096)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505-338-2424)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lbuquerque
(505-296-8568)

Midori Susui 6205-B
Montgomery NE,
Albuquerque
(505-830-2507)

Pacific Rim Asian: 10721
Montgomery NE,
Albuquerque
(505-271-0920)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lbuquerque
(505-890-2838)

Samurai: 9500 Montgomery
NE, Albuquerque
(505-275-6601)

Shogun: 3310 Central Ave
SE, Albuquerque
(505-265-9166)

Sizzler: 7212 Menaul Blvd,
Albuquerque
(505-833-5755)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87109
(505-797-8000)

Yen Ching: 4410 Wyoming
NE, Albuquerque
(505-275-8265)

Yummi House: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505-271-8700)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생내추럴: 1805 Gallinas,
Rio Rancho (505-385-2486)

공인회계사 CPA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5850 Eubank NE,
2270 Wyoming NE,
9411 Coors NE,
1418 Juan Tabo NE,
6124 4th St NW,
1903 Coors SW,
11816 Central SE,
4312 Coors SW,
1649 Bridge SW,
(505-999-8222)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505-242-8542)

모텔 Hotel/Motel

Ramada Inn: 2015 Menaul
Blvd NE, Albuquerque
(505-881-3210)

부동산 Realtors

그레이스김 Grace Kim:
Kerzee Real Estate
(505-315-5123)

김영신 Yong Shin Kim:
Jade Southwest Realtors
(505-321-7695)

수잔리 Susan Lee:
Coldwell Banker
(505-934-8949)

최귀분 Gui E. Bonaguidi:
Vaughan Company
(505-249-8686)

세탁소 Dry Cleaners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66-3231)

신발 Shoes

Rio Shoes: Coronado Mall
6600 Menaul NE,
Albuquerque
(505-883-9009)

의류 Clothes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lbuquerque
(505-884-2202)

Central Outlet: 4716 Central
Ave SE, Albuquerque
(505-255-4345)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lbuquerque
(505-830-9400)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1-6355)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Hair Dynamic(Ashley):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Matthew Lee's Hair
Style(홍정희): 11901
Menaul NE,
(505-271-1056)

Nob Hill Barber Shop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Pearl's Place: 800 Trinity
Suite E (505-661-2400)

Piance Hair Salon(Tina):
4300 Ridgcrest Dr NW
(505-907-9229)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종교 Church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lbuquerque, NM 87110
(505-271-8031)

뉴멕시코 성결교회: P.O.Box
94855, Albuquerque, NM
97199
(408-334-7227)

샌타리아 장로교회: 10704
Paseo Del Norte NE,
Albuquerque
(505-823-1678)

알버커키 장로교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505-803-7716)

알버커키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505-331-9584)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lbuquerque
(505-903-2297)

주택융자 Loan Officer

김미경 Mikyong Kim
(Homemortgage) 200
Lomas Blvd. NW 11flow
87102
(Office 505-765-5098)
(cell 505-379-1089)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치과 Dental Clinic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커피 재료 Coffee

Moons Coffee & Tea: 1605
Juan Tabo NE,
Albuquerque
(505-271-2633)

태권도 TaeKwonDo

US Taekwondo Center
5850 Eubank NE, B36 ABQ,
NM 87111
(505-296-0336)

한의원 Acupuncture

Dr. Chang: 4716 Central
Ave SE, Albuquerque
(505-710-7504)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Dr. Park: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 #B
87113 (505- 514-2900)

화랑 Gallery

Park Fine Art
Gallery(박영숙): 20 First
Galleria Plaza NW, Suite
27
(505-764-1900)

하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lbuquerque
(505-345-6644)

중재서비스

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lbuquerque, NM 87112
(505-332-9249)

리오란초

Rio Rancho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4300 Ridgcrest
Dr. SE Suite #O Rio
Rancho, NM 87124

Osaka Restaurant: 1463 Rio
Rancho Blvd, Rio Rancho
(505-892-7778)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8855)

클로비스 Clovis

종교 Church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Gospel Clovis Full Korean: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62-4510)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생내츄럴:
(505-385-2486)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 -5420)

산타페 Santa Fe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종교 Church

New Beginning Church
480A County Rd. 84 Santa
Fe, NM 87506
(505-577-4572)
(cell 505-577-4572/황세희씨
남편 Damon Duran)

겔럽 Gallup

신발 Shoes

Rio Shoes: 1300 I-40
Frontage, Ste 304B, Gallup
(505-722-5396)

모텔 Hotel/Motel

Day's Inn: 3201 W. HW66,
Gallup
(505-863-6889)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Five Brother's Chinese:
1001 E. University Ave.,

Cl, Las Cruces
(575-496-2445)

공인회계사 CPA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
(Fax 575-523-7700)

카페/ 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0098)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종교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01 (915-276-2773)

화밍톤

Farmington

종교 Church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453-5461)

가게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벼룩 시장 FLEA MARKET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광고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

사고/팔고

렌트/부동산

구인/구직

도와주세요

정보마당

연방 국세청 IRS - Tax Advocate Service에서
지정한 본 회사는 뉴멕시코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납세자를 위해
채류 신분에 관계없이
각종 세금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세무처리 해 드립니다.
한국어 상담은 '게일' 을 찾으세요.
Low Income Taxpayer Clinic
Imperial Services Corp.
Nonprofit Organization
7103 4th Street NW, Unit O-3
Albuquerque NM 87107
Tel: 505-503-7252
www.imperialnm.org



ALLSTAR REALTY
OUR NAME SAYS IT ALL™

김영신 부동산

Associate Broker
7001 Prospect NE, Ste. 200
Albuquerque, NM 87110
yongfre@yahoo.com

505.321.7695 (cell)
505.888.1700 (office)
505.888.9650 (office fax)

The Vaughan Company REALTORS®



Albuquerque 거주 27년과
부동산 중개업 11년 경력의
노하우로 여러분을
성심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직통전화: 505-797-6820

핸드폰: 505-249-8686

팩스: 505-822-0734

무료전화: 800-727-3697

6703 Academy NE Suite A, Albuquerque, NM 87109

**KOREAN
B.B.Q
HOUSE**

Sushi & Sake

Lunch
11:00-2:3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10:00 Fri-Sat

Closed on Sundays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Sushi & Sake

Lunch
11:00-2:0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9:30 Fri-Sat

Closed on Sundays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ICHIBAN

Japanese Restaurant

一番 Japanese Food
& Korean Food

Phone (505)899-0095
www.ichiban-alb.com
10701 Coors Blvd. NW Albuquerque NM 87114

A-1 한국식품점

Everything You Need for Oriental Food

(505)-275-9021
1410 Wyoming NE
Albuquerque NM 98112

Grand Opening!

Pho MeatBall 월남국수

Vietnamese Beef Noodle House

Dine In - Carry Out

6205 B Montgomery Blvd NE
505-872-2311

...Corner of San Pedro / Montgomery

Large	medium	Small
\$5.75	\$5.25	\$4.75



15% Off
Entire Purchase
Expires 2/30/10